

	<b>문화재청 50년,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</b>		
<b>報道資料</b> [2011.11.1.]	<b>보도시점</b>	<b>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</b>	
	<b>담당부서 (전화번호)</b>	활용정책과 (042-481-4742/4744)	
	<b>담당자 (e-mail)</b>	변지현(bjh@ocp.go.kr) 김도형(dhkim@ocp.go.kr)	
「문화재청(www.cha.go.kr) 새소식,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(www.korea.kr) 정책정보」에 동시게재			

## 스마트폰으로 보고, 듣고, 즐기는 ‘창덕궁 이야기’

- 문화재청, 창덕궁 스마트가이드 앱 서비스 제공 -

문화재청(청장 김 찬)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창덕궁을 대상으로, 스마트폰을 이용해 창덕궁에 대한 다양한 안내해설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(창덕궁 이야기)을 제작해 서비스를 시행한다.

「창덕궁 이야기」는 창덕궁의 다양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구성하여, 자유 관람 안내는 물론, ‘왕의 발자취’, ‘신하의 발자취’, ‘세자의 발자취’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관람객들이 각자의 취향과 관심에 따라 창덕궁에 대한 안내해설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특히 주제 관람 중 ‘왕의 발자취’와 ‘왕비의 발자취’는 텔런트 최수종·하희라 부부가 재능기부를 통해 해설 녹음에 참여, 영조대왕과 정순왕후의 시각으로 창덕궁을 안내해준다.

창덕궁 관람 안내는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활용하여 관람객의 동선에 따라 자동으로 안내되며, 이에 따라 관람객이 더 자유롭고 편리하게 창덕궁을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또한, 스마트가이드 외에도 ‘살아 있는 울타리 취병’, ‘동궐도를 통해 만나는 창덕궁’ 등 창덕궁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구성한 영상콘텐츠, 갤러리, 창덕궁 안내지도, SNS(트위터, 페이스북)와의 연계 등 스마트폰에 특화된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.

이번 애플리케이션은 내국인은 물론, 외국인도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어, 영어, 일본어, 중국어 등 4개 언어로 제작, 4개의 별도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되며, 외국 관람객의 창덕궁 관람 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.




「창덕궁 이야기」는 현재 안드로이드폰 버전이 출시되었으며, 11월 중 아이폰과 윈도우 모바일 버전도 차례로 서비스 할 예정이다.

안드로이드폰 버전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무료로 다운이 가능(아이폰은 앱스토어, 그 외 문화재청과 창덕궁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)하다.

단, 애플리케이션 용량이 커(510MB), 3G 환경에서는 다운로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, 관람객들은 와이파이 환경에서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.

붙임 : 창덕궁 스마트가이드 화면 사진 자료 1부. 끝.

창덕궁 스마트 가이드 화면 사진 자료

스마트가이드 안내 화면	메인 화면	무인 안내 화면
 <p>Changdeokgung Palace Story <b>창덕궁 이야기</b></p>	 <p>창덕궁 이야기</p> <p>창덕궁 소개 관람안내 나의 창덕궁 My Menu 이용안내 Guide</p> <p>고궁 갤러리, 네 마음에 고궁을 품다</p> <p>창덕궁 세계문화유산 WORLD HERITAGE</p>	 <p>창덕궁 무인 안내</p> <p>코스선택</p> <p>스마트 가이드가 시작되었습니다. 코스 선택을 통하여 테마 관람이 가능합니다</p> <p>Tracking PHOTO QR LIST</p>

파노라마 갤러리	포토 갤러리
 <p>상항전</p>	 <p>갤러리</p> <p>디지털 정보 갤러리 360 피콜</p>